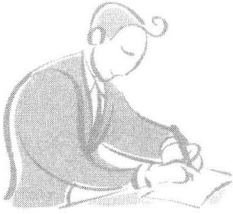


건강과 생산성 관리

(Health and Productivity Management : H&PM)



이 강 숙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대학원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풍요로운 삶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창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조직체에서의 성과는 주로 생산성과 관련된 업무상의 가시적 결과나 또는 업무수행상의 효율성으로 흔히 이해되고 있다. 생산성이란 투입(자원과 시간)과 결과(생산품, 서비스, 지식 등)와의 관계로 주어진 단위 시간 내에 경제적인 가치 및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결과 이외에도 심리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도 포함하는데 직무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경력개발과 성장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조직체에서 느끼는 만족감, 사기, 응집력, 충성심, 동기유발 등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사기지수, 이직률, 결근율, 사고율, 고충처리수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증진'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건강증진은 기업에서 생산

성 향성을 확실하게 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써 이러한 접근은 21세기의 모든 기업의 우선적인 전략이 되었다.

'인적자본'의 보유와 증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인 '건강과 생산성 관리'는 손상에 대한 위험, 만성질환, 장애 및 생활습관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결근, 업무수행 저하와 의료비를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에 경제적, 혹은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급성, 만성 예방 가능한 질환이나 건강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업무수행 손실' '업무효율성' 'presenteeism(출근을 하였으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과 생산성 관리'는 모든 기업에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모든 기업이 당면한 과제는 향후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된 인력은 누적된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판단력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건강위험, 손상, 만성질환, 장애, 결근이나 업

무수행성 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에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할 건강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커져서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제공해야 할 건강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노동력의 세계화 추세로 근로자들의 평균 생산성의 향상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사업장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1달러 투자에 3.93 달러의 이득이 돌아온다고 하고 또는 5.09달러의 결근비용이 감소된다고도 하였으며 평균 건강관리 비용의 감소가 26.1%, 장애관리 비용과 근로자 보상의 감소가 30% 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건강위험요인은 근로자 보상이나 병가, 장애 비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의 감소는 건강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노동력에서 개인의 업무수행과 건강 및 건강 비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 '건강과 생산성관리' 로써 다른 사업장 건강증진이나 산업보건과 다른 점을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포괄적 접근으로써 건강위험요인, 손상의 위험, 만성질환, 장애, 결근, 업무 효율을 포함한다. 이들 중 몇 가지를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single focus one shot program) 충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어 수행하는

것이다.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는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적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자원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직체의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변수는 무엇인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직장환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개인차원의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과 팀 빌딩 등의 조직관리 프로그램뿐 아니라 유머경영과 같은 조직문화 변화 등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잘 통합된 개입조치를 말하는데 이는 각 활동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이러한 통합된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에게 좀더 다가가기 용이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장기적인 건강한 행동 변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커다란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온다. 통합은 단일화된 행정구조와 수행, 전략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측정 주도적 접근으로써 평가는 관리의 기본적인 축이다. 인적 자본의 보유와 향상을 반영하는 자료수집의 설계, 수집, 모니터링, 분석은 '건강과 생산성 관리'의 성공의 중심으로써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변수를 포함하고 이들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을 제공한다.

네 번째는 예방 중심적으로써 1차, 2차, 3차 예방을 포함한다. 1차 예방은 안전실천이나 금연, 체중관리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손상에 대한 선행요인을 다루며, 2차 예방은 조기발견, 위해성 감시체계, 정기적인 검사를 포함하며 3차 예방은 업무로 인하여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상태, 비생산적인 태도나 상해와 더불어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는 적극적 모집전략으로써 기존의 산업보건에서의 단순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수동적인 모집방법은 이를 가장 필요로 하고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개인에게 까지 접근이 어렵다.

능동적 모집전략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인센티브와 고도의 개별화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자발적인 지원, 다양한 양식의 접근, 높은 수준의 통합된 방법으로써 이러한 적극적인 모집전략은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